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4

요한계시록에서 (3)
생명나무

성경: 창 2:7-9, 계 2:4-5, 7, 22:1-2, 시 36:7-9, 73:25-26

I.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재이다—창 2:9, 요 1:4, 10:10, 14:6, 15:1, 6:35, 63, 고전 15:45 하.

- A.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다—창 1:26-28, 31, 2:7-9.
- B.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절차의 목표이다—요 19:34, 롬 5:10, 골 3:3-4, 계 22:1-2.
- C.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흘러 나오셔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시 36:7-9, 계 22:1, 렘 2:13.

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것뿐임을 보아야 한다—갈 1:16, 2:20, 4:19, 빌 1:19-21, 엡 4:13, 고후 3:18.
 -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B.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둘째 문제는 위선이다—마 6:2, 5, 7:5, 23:13-29.
 -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관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단순히 허락해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 C.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셋째 문제는 반역이다.
 -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신다.
 -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 가장 위중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롬 8:6, 요일 2:27.
- D.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을 멸시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이 우리 안에 파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E.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마 16:24-25.

III.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최우선의 일이어야 한다—계 2:7, 요 6:57.

- A.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수록 내용이 더 풍성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계 2:4.
- B.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에서 떠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놓치고 예수님의 간증을 잃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C.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 이 셋은 함께 한다.

IV. 첫째가는 사랑, 곧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2:4,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 A.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 역대에 걸친 교회의 실패의 근원이자 주된 이유이다. 우리를 주님과 합당한 관계 안에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빌 3:8, 마 26:6-13, 엡 3:16-19, 6:24, 계 2:4-5, 비교 3:20.
- B.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2:5, 살전 1:3, 고후 4:5, 5:14-15, 아 2:4-5, 롬 8:31-39.
- C.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은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아 1:1-4.
- D.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 우리는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 같은 그분의 청년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고(시 110:3), 지친 이들을 배우는 이의 혀를 갖고 말로 돕는 법을 알게 되며(사 50:4-5),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복음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구하게 된다(막 1:35).
- E.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헌신하는 생활을 하여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되는 것인데, 이 나실인들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 있다—시 110:3, 민 6:1-9, 22-27.
- F.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삼상 12:23, 마 6:6, 14:22-23, 단 6:10, 2:17-18, 딤후 2:1, 딤후 1:3, 살전 5:17.
- G.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는 것이다—시 119:11, 14-15, 23, 48, 72, 78, 97, 99, 111, 113, 119, 127, 140, 147-148, 159, 162-163, 165, 167.
- H.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다스림 받는 것이다—출 33:11, 14, 13:21-22, 고후 2:10.
- I.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 J.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다—고후 8:5, 요일 1:3, 엠 4:11-12.
- K.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하고, 그 영에 의해 섬기며,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갈 5:25, 빌 3:3, 고후 3:6, 슄 4:6, 샷 9:9, 비교 삼상 2:30 하.
- L.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생수의 원천,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증거이자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을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렘 2:13, 요 4:14 하.
- M.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최우선의 일이어야 한다—계 2:7.
- N.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계속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사 57:20, 영어 회복역 각주 1.
- O.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 곧 붙들어주는 축과 우리의 전부, 곧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축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골 1:17 하, 18 하.
- P.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려는 큰 뜻을 품는 것이다—고후 5:9, 골 1:10, 히 11:5-6.
- Q.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두려울 정도로 투명한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한 것, 즉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겔 1:22, 26.
- R.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분께 친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골 2:19.
- S.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세부적인 모든 것들에서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수 9:14, 빌 4:6-7.
- T.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겔 47:1, 계 22:1-2.
- U.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소서. 제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항상 저를 패배시키소서.” 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하는 것이다—고후 2:13-14.
- V.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최고의 일이다—시 22:3, 119:164, 34:1.